

#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 및 현대적 사용실태 조사연구

## Discrimination & Current Usage of Traditional Furniture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조교수 박 영 순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

교 사 조 기 연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Young Soon Park**

*Kwang Dong Girls High School*

Teacher: **Ki Yeun Cho**

### <목 차>

I. 서 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and current usage of traditional furniture by people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and preference for traditional furniture were also examined.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traditional furniture owned by respondents were mainly document chest (mungab), dining table(soban) and open etagre(sabang-takja). Book cases(chaikjang) were rarely owned. Function of some furniture such as single shelf chest (danchung-jang), kitchen cabinet(chantak) and desk(suhan) have been changed.

2) Highly discriminated traditional furniture were document chest (mungab), wardrobe(chest-jang) and dining table(soban).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of letter rack(gobi), kitchen cabinet (chantak) and bookcases(chaikjang), however, were very low.

3)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discriminating ability and interest for the furniture and the status of possession of it.

4) Som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related to discriminating ability of the furniture. The group in high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showed high discriminating ability of the furniture than those in lower levels.

5)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scriminating ability and interest. The more interest, the higher discriminating ability.

6) Most preferred traditional furniture at present were three shelved clothing chest(samchung-jang), document chest (mungab), wardrobe chest(euiguri-jang) and open etagere (sabang-takja).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한 나라의 생활문화는 자연적 환경이나 국가 민족의 기원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생활자와 그가 속해 있는 국가의 전통간에는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통적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 미래를 연계성 있도록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목공가구는 현대에 와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변조된 것이 많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구는 서양문명에 의한 현대적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전통가구들은 특수층의 장식품으로 인식되어 그 전통양식을 잃어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

전통을 되찾는 일이란 우선 무엇이 전통적인 것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가구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칭도 모르는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활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겠으나 무엇이 전통적인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조선시대로 국한하여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실내 가구들을 중심으로 그 인식정도와 관심정도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고가구의 소유현황과 용도 및 사용장소를 파악한다.
- 2) 고가구의 소유여부에 따라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고가구에 대한 관

심도,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4)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현대인이 선호하고 있는 고가구의 종류를 파악한다.

## II. 문헌 고찰

### 1. 조선시대 가구에 관한 선행연구

조선시대 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통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측면에서의 연구와 현대 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의식측면에 관한 연구로써, 광계정(1969)은 조선시대 목공가구에 사용된 금속장식에 관해 연구하여, 우리나라 공예의 전통성과 독창성을 알렸으며 조선시대 목공가구에 나타난 문양에는 자연주의 사상이 깊이 배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김경옥(1972)은 조선시대 사랑방 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사랑방 가구의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고 소박하고 간결한 미를 지닌 사랑방 가구의 아름다움을 지적하여 가구의 전통성 계승을 주장하였다.

다음 고가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써, 조일상(1972)은 문방생활의 중심이 되는 서안형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공예의 질서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접을 시도하였다. 또한 구조비례의 질서미를 전통적으로 바탕삼아 현대산업공예에 적용시켜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미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받아 창조로서 연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숙(1976)은 조선 후기의 탁자를 형태와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연구한 결과, 현대 디자인으로 처리된 실내에서도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전통가구의 현대적 적용의 방법을 찾는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였다. 윤근(1976)은 조선시대 만다지의 금속장식

〈표 1〉 고가구의 특성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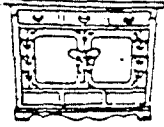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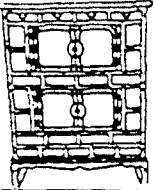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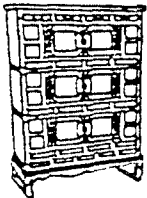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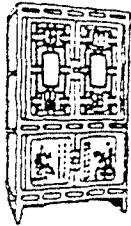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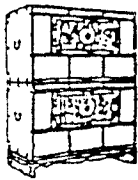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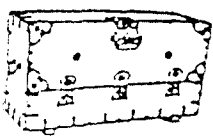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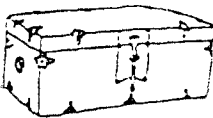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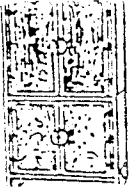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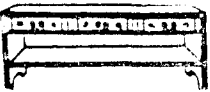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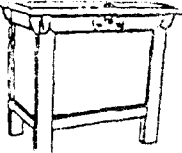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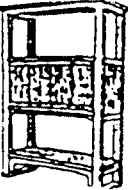

그림	명칭	용도	사용장소	특징
	단층장 (머릿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 도구 보관	안방 사랑방	하나로 독립된 단층장은 사용되는 소품들을 넣어 두며 천판 위에는 필통, 연적, 서류함등을 올려 장식하기도 하는 다목적 가구이다. 광택없는 목리를 살린 점이 아름답다.
	2층장	의류보관	안방	긴 한 장의 판재로(측널을) 구성하여 각층이 분리되지 않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굵고 튼튼한 재질의 것이 필수적이다. 변분할이 주요 요소로 구조미와 비례미가 아름답다.
	3층장	의류보관	안방	2층장과 마찬가지로 한 장의 판재로 측널을 구성하여 3층으로 구성된 것과 운반을 고려하여 3층만 분리되도록 짠 것도 있다. 2층장과 함께 한국 가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의거리장	의류보관 (도포, 두루마기, 긴옷 등)	안방	상반내부가 요즈음의 양복장처럼 되어 있어 긴 옷을 걸어두기에 편리하도록 뿔대라 부르는 긴막대를 설치하였다. 장의 하반부에다 의복을 개켜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자그마한 칸이 막혀져 있고 따로 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마치 2층장처럼 보인다.
	2층농	의류보관	안방	농은 각 층이 분리되어 (상·하로) 쌓아 놓은 것으로 운반에 편리하도록 대부분 측면에 고리가 달려있다. 또한 장과 다른 점은 대개 상층상변에 개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다지	의류보관 기물, 제기 보관	안방	전면 상반부에 문짝을 만들어 상하로 여닫도록 되어 있어 전면에 경첩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넣은 두꺼운 판에 무쇠로 된 큼직한 장식들이 어울려 단순 후박한 멋을 주는 건장미를 갖고 있다.
	함	의류, 서류 보관	안방 사랑방	물건을 넣는 상자류인데 대체로 상부전면을 뚜껑을 만들어 열도록 되어 있고 함과 비슷한 채는 전면이나 상부를 두편으로 나뉘어 경첩을 달아 한면의 일부만을 열도록 된 형이다. 따라서 함은 뚜껑면에 경첩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명칭	용도	사용장소	특징
	사방탁자	애완용품, 문방용구 진열	안방 사랑방 대청	하층에 수납장을 갖춘 탁자장으로 층의 구분이 2층에서 5층까지로 다양하며 현대적 감각의 시원한 공간구성으로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책장	책보관	사랑방	사랑방의 필수적인 가구로서 책을 보관하기 위해 적당한 층널 분할로 기능적이다. 간결하고 조출한 목리문을 사용하여 검소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갑	문방용구 보관	안방 사랑방	문갑은 낮고 길어서 놓였을 때 벽면에 시원한 여백을 가져와 생활공간을 넓게 보이는데 효과적이다. 안방용과 사랑방용이 있다.
	서안	책상	사랑방	범상은 직선적이고 간결한 형태이고 경상은 장식적인 형태로 둘 다 글을 읽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였다.
	고비	편지나 두루말이보관, 장식용	안방 사랑방	고비는 문서나 편지를 꽂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한 것으로 평좌식 생활에 따라 넓은 벽면을 장식하는데 주로 쓰였고 안방용과 사랑방용이 있다.
	뒤주	곡식류보관	대청 반딧간	상부 전면을 위로 열도록 되어 있으며 경첩이 없는 것이 주류를 이루며 쌀 뒤주와 잡곡 뒤주의 2종이 있다. 텅텅하고 우둔스러워 보이면서도 친근한 맛이 엿보인다. 주로 대청에 놓이게 되나 반딧간이 독립된 경우 뒤주는 반딧간에 놓는다.
	찬탁	그릇, 음식보관	부엌 반딧간	굵고 투박한 재료로 무거운 유리나 자기그릇을 보관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굵은 선이 특징이다. 시각적으로 시원함과 신뢰감을 주며 쾌적한 비례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소반	상	부엌	각 지방에 따라 독특한 의장을 가지게 되며 지역에 따라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등으로 구분된다.

문양에 대해 연구하여, 가구와 금속장식의 조출하면서도 짜임새있는 배열을 현대가구에 체계있게 응용한다면, 현대의 생활공간에 쾌적하며 한국가구의 독자적인 특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고가구의 활용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최 목화(1979)는 고가구의 용도가 현대생활에서 다양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목공가구의 특성인 독특한 개성미와 우리 생활양식에 알맞는 기능이 현대적인 감각과 잘 조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인의 고가구에 대한 관심요인은 고가구의 소유여부,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관심이 비교적 높았으며,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준훈(1981)은 사방탁자의 간결하고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활용하고자,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로 한정시켜 조선시대의 사방탁자를 응용한 수납탁자를 연구하였다. 또한 김 유순(1985)은 전통가구의 복제나 모방에 그침으로써 장식취미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전통미를 현대의 거실에 적극 적용하여 실용적 생활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현대 거실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성 재확립이라는 시점에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전통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 유 영희(1986)는 조선시대 목공가구에 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표현어휘들을 수집하여 목공가구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랑방 가구에 대해 일관성있게 표현하고 있는 어휘들을 추출하여 대표적인 어휘를 선정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어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사랑방 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의식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보다 적극적인 현대생활에서의 전통가구 적용과 현대인의 전통가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2. 조선시대 가구의 특성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조선시대 목공가구의 각 특성을 요약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 고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도, 인식도, 선호 및 현대적 사용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예비조사 및 본 조사

#### 1) 조사도구의 작성

##### (1) 고가구 인식도에 관한 문항

현대인들이 고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가구의 명칭, 용도, 사용장소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가구들은 조선시대 목공가구 중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가구 15가지 종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여러 문헌에서 빈번히 다루어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각 종류별로 들씩 골라 천 병욱(1985)의 문헌에 정리된 그림을 발췌하였다. 따라서 문항은 응답자들이 이와같이 선정된 가구의 그림을 보고 그 명칭과 용도, 사용장소를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고가구 관심도에 관한 문항

고가구에 대한 관심정도는 단일 문항으로 설정하여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 (3) 고가구의 소유여부 및 현대적 사용방법에 관한 문항

현대생활에서의 고가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선 소유여부를 묻고 소유한 고가구를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전통성의 계승이라는 시점에서 소유한 고가구가 조선시대 고가구이든, 그것을 재현시킨 모조품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문항에서는 전부 포함시켰다.

##### (4) 고가구의 선호에 관한 문항

다양한 고가구 중 현대인들은 어떠한 종류를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정되었던 15가지 고가구 그림을 보고 갖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세 가지

만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

이상에서 조사한 고가구의 일식도, 관심도, 선호 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경제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예비조사

제 1차 예비조사는 일반 가정의 주부, 남편, 만 20세 이상의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응답자들이 응답하기에 모호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제 4차 예비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3) 본 조사

본 조사의 대상은 연령층을 고려하여 초·중·고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986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 동안에 배포되고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총 700부를 배포하여 542부(77.4%)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사용가능한 설문지 426부(60.9%)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자료 처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통계처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치, 변량분석,  $\chi^2$ -test, Pearson's r 등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고가구 소유 현황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분포되었는데 주로 30대(35.7%)와 40대(59.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같이 연령 분포가 3, 40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본 조사에서 초·중·고 학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전체를 3단계로 나누어 본 결과 국민학교~중학교 졸업이 25.1%, 고등학교

교 중퇴~고등학교 졸업이 46.7%, 대학교 중퇴~대학원 이상이 28.2%의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는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교사를 사무직에 포함시켜 구분한 결과 47.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상업은 28.2%, 사업은 11.7%, 교수,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은 4.7%였다.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가정의 총수입은 상층으로 구분한 90만원 이상이 20.4%, 중층으로 구분한 40만원 이상~90만원미만이 19.0%였다.

#### 2) 고가구 소유현황과 현대적 활용

먼저 조사 대상자의 고가구 소유 현황을 보면, 소유자가 52.1%, 비소유자가 47.9%로 비교적 높은 소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가구를 재현시켜 만든 모조품도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유하고 있는 고가구를 조사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높은 소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갑(27.2%), 소반(26.8%)등이고, 비교적 높은 소유율을 보인 것은 사방탁자(16.0%), 단층장(13.4%)반다지(11.7%) 등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고가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문갑은 기타보관(35.2%)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비약이나 귀중품과 같은 소품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장식용(18.1%)과 의류보관(12.9%)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문방용품들을 주로 보관하던 것과는 다른 현대생활에서의 용도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원래 의류나 문서를 보관하던 함은 대부분 의류보관(51.9%)이나 서적보관(18.5%), 기타보관(11.1%)의 비율이 높아 용도상의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도구를 보관하던 단층장(머릿장)은 의류보관(31.6%) 이외에도 장식용(24.6%), 진열장(11.0%)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변화가 큰 편이다.

책상으로 쓰였던 서안은 현대생활에서도 주로 책상(43.2%)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티테이블(24.3%), 장식용(18.9%)으로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용도상의 변화는 조선시대 음식물이나

〈표 2〉 고가구의 소유분포 및 현대 생활에서의 용도 분류

(N=222)

용도별 분류		소유율	의류보관	서적보관	곡식류보관	기구타보관	진열장	장식용	소장품	주방용	책상	티 테이블	비고	계
소유 고가구		%	%	%	%	%	%	%	%	%	%	%	%	%
문	갑	27.2	12.9*	16.4*	—	35.3*	12.1*	18.1*	5.2	—	—	—	—	100.0
의	장	6.3	92.6*	3.7	—	—	3.7	—	—	—	—	—	—	100.0
	합	6.3	51.9*	18.5*	—	11.1*	—	7.4	7.4	—	—	—	—	100.0
단	장	13.4	31.6*	5.3	—	17.5*	14.0*	24.6*	5.3	—	—	1.8	—	100.0
이	장	9.6	85.4*	—	—	2.4	2.4	9.8	—	—	—	—	—	100.0
서	안	8.7	—	—	—	2.7	8.1	18.9*	2.7	—	43.2*	24.3*	—	100.0
찬	탁	4.0	—	11.8*	—	—	52.9*	29.4*	5.9	—	—	—	—	100.0
소	반	26.8	—	—	—	—	0.9	6.1	0.9	64.9*	1.8	24.6*	0.9	100.0
반	지	11.7	74.0*	4.0	—	12*	2.0	6.0	2.0	—	—	—	—	100.0
교	비	2.6	—	—	—	45.5*	—	54.5*	—	—	—	—	—	100.0
뒤	주	7.7	—	3.0	69.7*	3.0	—	18.2*	6.1	—	—	—	—	100.0
이	농	2.6	63.6*	18.2*	—	9.1	—	9.1	—	—	—	—	—	100.0
삼	장	9.4	77.5*	2.5	—	7.5	5.0	7.5	—	—	—	—	—	100.0
사	자	16.0	—	2.9	—	4.4	48.5*	44.1*	—	—	—	—	—	100.0
책	장	0.4	50.0*	—	—	—	—	50.0*	—	—	—	—	—	100.0

———— 은 조선시대의 용도를 나타냄.

\* 은 현대생활에서의 용도 비율이 비교적 큰 수치를 나타냄(10% 이상).

————\* 의 항목은 현대생활과 조선시대의 용도가 일치되는 비율을 나타냄.

〈표 3〉 현대 생활에서의 고가구의 사용장소

(N=222)

고가구 장소		안 방 %	건넌방 %	거 실 %	마루나대청 %	부 영 %	기 타 %	계 %
문	갑	91.1*	0.9	—	—	—	—	100.0
의 거 리	장	85.2*	7.4	3.7	3.7	—	—	100.0
	합	37.0*	22.2	11.1	7.4	—	14.8	100.0
단	층 장	47.4*	8.8	33.3*	8.8	—	3.5	100.0
이	층 장	58.5*	22.0	14.6	2.4	—	—	100.0
서	안	40.5*	13.5	24.3	16.2	2.7	2.7	100.0
찬	탁	23.5	11.8	47.1*	17.6	—	5.9	100.0
소	반	11.4	2.6	7.0	6.1	72.8*	—	100.0
반	다 지	30.0*	24.0	24.0	14.0	—	10.0	100.0
고	비	9.0	—	54.5*	36.4*	—	—	100.0
뒤	주	—	15.1	18.2	18.2	42.4*	3.0	100.0
이	층 농	63.6*	27.3	9.1	18.2	—	—	100.0
삼	층 장	62.6	20.0	7.5	5.0	—	—	100.0
사	방 탁 자	48.5*	4.4	38.2*	10.3	—	—	100.0
책	장	100.0	—	—	—	—	—	100.0

\* 현대생활에서의 각 항목별 고가구 사용장소 비율이 비교적 높은 (30% 이상) 것을 나타냄.

식기류를 보관하던 찬탁이 진열장(52.9%), 장식용(29.4%)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서적보관(11.8%)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반은 원래의 용도인 밥상이나 찻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티 테이블(24.6%)로써의 용도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류보관, 기물·제기 보관으로 사용되었던 반다지는 현대생활에서도 원래의 의류보관(74%), 기타보관(12%)으로 나타나 용도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

뒤주는 곡식류보관(69.4%) 이외에 장식용(18.2%)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장식품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층농도 의류보관(63.6%) 이외에 서적보관(18.2%)으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상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방탁자는 원래 용도인 진열장(48.5%) 이외에 장식품(44.1%)으로 사용되어 역시 고가구가 장식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장도 원래의 용도인 서적보관과는 달리 의류보관이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도상의 변화가 적은 고가구로는 의거리장, 이

층장, 소반, 반다지, 고비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고가구들은 현대생활에서 비교적 많은 용도상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생활에서의 고가구 사용장소를 분류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갑의 경우 주로 안방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의거리장(85.2%), 합(37%), 단층장(47.4%), 이층장(58.5%), 반다지(30%), 이층농(63.6%), 삼층장(62.6%)등은 대부분 안방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건넌방, 거실, 마루나 대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사방방에서 사용되었던 서안(40.5%)과 책장(100%)은 주로 안방에서 사용되었고 그밖의 여러 장소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사방탁자는 안방(48.5%) 이외에도 건넌방, 거실, 마루나 대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고비는 거실(54.5%), 마루나 대청(36.4%)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로써 과거의 사방방의 기능은 현대에 와서 거실과 안방으로 분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반(72.8%)과 뒤주(42.4%)는 원래의 장소인 부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밖의 장



〈표 4〉 고가구의 인식도 분포

(N=426)

인식 인식정도 고가구종류	명 칭			용 도			사 용 장 소		
	잘 알고 있음	유사하게 알고있음	모름(무 응답자 포함)	잘 알고 있음	유사하게 알고있음	모름(무 응답자 포함)	잘 알고 있음	유사하게 알고있음	모름(무 응답자 포함)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문	370 (86.9)*	5 (1.2)	51 (11.8)	90 (21.1)	33 (7.7)	303 (71.1)	50 (11.7)	372 (87.3)	4 (0.9)
의 거 리 장	67 (15.7)	24 (5.6)	335 (78.6)	361 (84.7)*	13 (3.1)	52 (12.2)	353 (82.9)*	15 (3.5)	58 (13.6)
합	171 (40.1)*	15 (3.5)	240 (56.3)	11 (2.6)	324 (76.1)	91 (21.4)	174 (40.8)*	12 (2.8)	240 (56.3)
단 층 장	49 (11.5)	4 (0.9)	373 (87.6)	59 (13.8)	12 (2.8)	355 (83.3)	195 (45.8)*	20 (4.7)	211 (49.5)
이 층 장	114 (26.8)	6 (1.4)	306 (71.8)	357 (83.8)*	24 (5.6)	45 (10.6)	294 (69.0)*	29 (6.8)	103 (24.2)
서 안	110 (25.8)	7 (1.6)	309 (72.5)	326 (76.5)*	31 (7.3)	69 (16.2)	251 (58.9)*	64 (15.0)	111 (26.1)
찬 탁	6 (1.4)	7 (1.6)	413 (96.9)	11 (2.6)	3 (0.7)	412 (96.7)	5 (1.2)	252 (59.2)	168 (39.7)
소 반	101 (23.7)	204 (47.9)	121 (28.4)	370 (86.9)*	16 (3.8)	40 (9.4)	357 (83.8)*	18 (4.2)	51 (12.0)
반 다 지	95 (22.3)	2 (0.5)	329 (77.2)	292 (68.5)*	21 (4.9)	113 (26.5)	159 (37.3)	20 (4.7)	247 (58.0)
고 비	12 (2.8)	1 (0.2)	413 (96.9)	6 (1.4)	276 (64.8)	144 (33.8)	25 (5.9)	235 (55.2)	166 (39.0)
취 주	250 (58.7)*	108 (25.4)	68 (15.9)	333 (79.6)*	19 (4.5)	68 (16.0)	32 (7.5)	358 (84.0)	36 (8.5)
이 층 농	2 (0.5)	12 (2.8)	412 (96.7)	281 (66.0)*	27 (6.3)	118 (27.7)	220 (51.6)*	20 (4.7)	186 (43.7)
삼 층 자	181 (42.5)*	8 (1.9)	237 (55.6)	300 (70.4)*	41 (9.6)	85 (18.0)	305 (71.6)*	41 (9.6)	80 (18.8)
사 방 탁 자	73 (17.1)	6 (1.4)	347 (81.5)	177 (41.5)*	47 (11.0)	202 (47.4)	10 (2.3)	393 (92.3)	23 (5.4)
책 장	19 (4.5)	4 (0.9)	403 (94.6)	55 (12.9)	13 (3.1)	358 (84.0)	80 (18.8)	24 (5.6)	322 (75.6)

\* 인식도가 비교적 높은 (40% 이상) 경우의 표시임.

소에서 사용되고 있어 생활양식과 주택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용장소의 약간의 변화를 보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사용장소의 변화가 큰 것은 찬탁으로 거실(47.1%)에서 많이 사용되고있었으며 안방(23.5%) 마루나대청(17.6%), 전년방(11.8%)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 2.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도

고가구의 소유여부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관심도 및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관심도와 인식도의 단순빈도론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였다.

### 1) 관심도

관심도 점수를 1점~5점까지로 구분하여 본 결과, 매우 관심있는 집단은 5.2%, 관심있는 집단이 31.7%, 그저 그런 집단이 48.4%, 별로 관심 없는 집단이 9.6%, 전혀 관심이 없는집단이5.2%로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 고가구 소유여부에 따른 관심도에 대한 차이 검증

관심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계		x <sup>2</sup>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고가구소유자	99(81.8)	23.3	105(107.4)	24.6	18(32.8)	4.2	222	52.1	21.63***
고가구비소유자	58(75.2)	13.6	101(98.6)	23.7	45(30.2)	10.6	204	47.9	
계	157	36.9	206	48.3	63	14.2	426	100.0	

\*\*\*p&lt;.001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관심도가 높은 집단(4~5점), 중간인 집단(3점), 낮은 집단(1~2점)으로 구분한 결과, 관심이 높은 집단이 36.9%, 중간인 집단이 48.4%, 낮은 집단이 14.8%를 차지하였다.

## 2) 인식도

고가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고가구의 명칭·용도·사용장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점, 유사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1점, 틀리게 알고 있거나 무응답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를 합산하고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는 62점, 가장 낮은 점수는 18점으로 평균점수가 41.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점수분포를 등간적으로 구분하면 인식도가 낮은 집단으로만 치중되므로 분포도를 조사하여 인식도가 높은 집단은 49점이상(16.7%) 중간인 집단은 34점이상 49점미만(66.2%), 낮은 집단은 34점미만(17.1%)으로 구분하였다.

명칭·용도·사용장소의 인식도의 경우도 각각 분포도를 조사하여 인식도가 높은 집단, 중간인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가구 인식도의 분포를 보면 〈표 4〉와 같이, 문갑은 명칭을 잘 알고 있고, 용도와 사용장소는 비교적 모르고 있었다. 의거리장, 이층장, 서안, 소반, 받다지, 이층롱 등은 명칭은 잘 모르나 용도와 사용장소는 잘 알고 있었다. 함은 명칭과 사용장소 인식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용도인식도는 낮았다. 반면에, 단층장은 사용장소를 잘 알고 있었으나 명칭과 용도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찬탁, 고비, 책장은 명칭, 용도, 사용장소 인식도가 모두 낮았다. 뒤효는 사용장소를 잘 모르고 있었으며, 사방탁자는 명칭과 사용장소를 잘 모르고 있었다. 유일하게 삼층장은 명칭, 용도, 사용장소

인식도가 모두 높았다.

또한 명칭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문갑(86.9%)이고, 뒤효(58.7%)도 높은 편이었다. 용도인식도에서는 의거리장(84.7%)이 가장 높았고, 이층장(83.8%)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사용장소에 관해서는 의거리장(82.9%) 소반(83.8%)에 대해 많이 인식되어 있었다. 대체로 인식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명칭 인식도가 낮은 고가구가 많았다.

## 3. 고가구의 소유여부와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도

### 1) 고가구의 소유여부와 관심도

고가구를 하나라도 소유한 집단과 소유하지 않은 집단 간에 고가구에 대한 관심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고가구의 소유여부에 따라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x<sup>2</sup>-test 한 결과,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I]은 긍정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고가구를 소유한 집단은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치우쳐 있고, 비소유 집단은 관심이 낮은 쪽으로 치우친데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고가구를 소유한다는 것은 관심의 척도가 될 수 있고, 고가구를 많이 소유할수록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5〉 참조).

### 2) 고가구 소유여부와 인식도

고가구를 소유한 집단과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집단 간에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

〈표 6〉 고가구 소유여부에 따른 고가구 인식도에 대한 차이 검증(명칭, 용도, 사용장소)

인식도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x <sup>2</sup>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소유여부							
고가구소유자	46(37.0)	10.8	149(147.0)	35.0	27(38.0)	6.3	11.32**
고가구비소유자	25(34.0)	5.9	133(135.0)	31.2	46(147.0)	10.8	
계	71	16.7	282	66.2	73	17.1	

\*\*p<.01

〈표 7〉 교육수준별 고가구 인식도에 대한 차이 검증(명칭, 용도, 사용장소)

인식도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z <sup>2</sup>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교육수준							
국민학교졸업 ~중학교졸업	6(17.8)	1.4	74(70.8)	17.4	27(18.3)	6.3	21.80****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졸업	34(33.2)	8.0	131(131.7)	30.8	34(34.1)	8.0	
대학교 중퇴 ~대학원이상	31(20.0)	7.3	77(79.4)	18.1	12(20.6)	2.8	
계	71	16.7	282	66.3	73	17.1	

\*\*\* p : .001

〈표 8〉 수입별 고가구 인식도에 대한 차이 검증(명칭, 용도, 사용장소)

인식도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x <sup>2</sup>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빈도 (기대빈도)	백분율 (%)	
수입							
상	21(14.5)	4.9	60(57.6)	14.1	6(14.9)	1.4	14.68**
중	44(43.0)	10.3	165(170.8)	38.7	49(44.2)	11.5	
하	6(13.5)	1.4	57(53.6)	13.4	18(13.9)	4.2	
계	71	16.7	282	66.2	73	17.1	

\*\* p<.01

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 고가구에 소유여부에 따라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세 집단으로 구분된 집단간의 차이검증을 x<sup>2</sup>-test로 분석한 결과, 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설 II]는 긍정되었다(〈표 6〉참조).

〈표 6〉을 보면, 고가구 소유자가 비소유자 보다

고가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를 명칭, 용도, 사용장소 인식도로 구분하여 각각 x<sup>2</sup>-test 한 결과 명칭인식도는 유의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용도인식도는 이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고가구 소유자가 비소유자보다 인식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관심도 및 인식도

#####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정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고가구에 대한 관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정도에 따라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x^2$ -test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 [가설 III]은 부정되었다. 이로써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정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별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고가구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갖고있기는 하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류의 관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는 개인적인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정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고가구에 대한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정도에 따라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x^2$ -test로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업에 따른 고가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수입정도에 따른 고가구인식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IV]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교육수준별 인식도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명칭, 사용장소 인식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용도인식도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쪽으로, 또 그 수준이 낮은 집단은 인식도가 낮은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의 전통문화

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정도에 따른 고가구 인식도는 이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명칭인식도가 0.1수준에서 사용장소인식도가 이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도인식도에 대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참조) 수입정도가 높을수록 그 인식도가 높다는 것은 교육수준이 경제수준과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 간의 상관관계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V]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 간의 접수를 가지고 Pearson's r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V]는 긍정되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그 인식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식도를 명칭, 용도, 사용장소별로 살펴보면, 용도인식도는 관심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명칭과 사용장소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로써 고가구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본래의 용도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고, 명칭과 사용장소와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생활에서 그 용도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고가구 인식도와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

고가구 인식도	고가구 관심도(r)
인 식 도	.24***
명 칭 인 식 도	.26***
용 도 인 식 도	.04N.S
사 용 장 소 인 식 도	.17***

\*\*\*  $p < .001$

N.S. = Not Significant

<표 10> 고가구 종류별 선호

(N=426)

고가구분류		조선시대 고가구		모조품 고가구		종류별 선호도	
		빈도(f)	백분율(%)	빈도(f)	백분율(%)	빈도(f)	백분율(%)
문	갑	88	20.7	52	12.2	140	32.9**
의	거 리	96	22.5	33	7.7	129	30.0**
	합	14	3.3	7	1.6	21	4.9
단	층	39	9.2	15	3.5	54	12.7
이	층	74	17.4	24	5.6	98	23.0*
서	안	70	16.4	25	5.9	95	22.3*
찬	탁	53	12.4	22	5.2	75	17.6
소	반	20	4.7	10	2.3	30	7.0
반	다	25	5.9	8	1.9	33	7.7
고	비	52	12.2	14	3.3	66	15.5
뒤	주	38	8.9	10	2.3	48	11.3
이	층	12	2.8	6	1.4	18	4.2
삼	층	122	28.6	43	10.1	161	37.8**
사	방 탁	62	14.6	53	12.4	116	27.2*
책	장	75	17.6	26	6.1	101	23.7
무응답(소유하고 싶지 않음)		88(20.7)					

\* 20% 이상의 선호율을 보인 것

\*\* 30% 이상의 선호율을 보인 것

### 6. 고가구의 종류별 선호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조품 고가구 보다는 조선시대의 고가구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고가구가 이른 모조품 고가구이든 관계없이 30% 이상의 선호율을 보여 현대생활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들은 삼층장, 문갑, 의거리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이상의 선호율을 보인 가구로는 사방탁자, 책장, 이층장, 서안이고 가장 낮은 선호율을 보인 것은 이층농과 합이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많은 종류의 고가구들은 조선시대의 용도,

사용장소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현대생활에서의 용도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거양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고가구 소유자는 비소유자 보다 관심도와 인식도가 높다는 것은 고가구에 대해 관심이 높으면 소유율이 높고 고가구를 많이 소유할수록 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고가구의 관심도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정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고가구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고가구의 인식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중에서 연령별, 직업별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수준별, 수입정도별 인식도와는 관련성을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정도가 높을수록 고가구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고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되어, 고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인식도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 현대인이 선호하는 고가구는 삼층장, 문갑, 의거리장, 사방탁자 등으로 비교적 낮아 앞으로 전통 고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제 언

앞으로도 고가구의 전통성과 인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 고가구의 전통성을 계승·확립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부터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가구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고가구가 현대생활 공간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가구를 적용한 현대생활 공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15가지로 제한된 고가구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고가구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1. 박계정, "한국가구의 장식무늬", 공간, 1671. 5, pp.21~33.
2. \_\_\_\_\_, "조선왕조 목공예에 나타난 장식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3. 김경옥, "이조시대 사랑방 가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4. 김원룡, 한국미술사, 서울, 범문사, 1968.
5. 김유순, "한국의 전통적 미를 적용한 현대 거실가구: 안락의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6. 김일진, "이씨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배치에 대한 기초적 연구(주로 내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건축 19권 64호, 197
7. 김현숙, "이조 후기 탁자류의 의장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8.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서울, 삼성출판사, 1982.
9. 박형철, "한국의 목공예 ①~③", 공간, 1976. 11~1977.1, pp.12~13, pp.6~7, pp.10~11.
10. 배만실, 이조 목공가구의 미, 서울, 보성문화사, 1983.
11. 손미자, "조선시대 죽재가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12. 윤근, "조선왕조 시대의 만다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13. 이인희, "이조시대의 주생활에 관한 소고—상류주택의 평면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1권 1호, 1973, pp.3~13.
14. 이준훈, "수납탁자에 관한 연구—조선조 사방탁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5. 이종석, "목칠공예", 한국의 미 24권, 중앙일보 계관미술, 1985.
16. \_\_\_\_\_, 한국의 목공예 上, 下, 서울, 열화당, 1986.
17. 조일상, "조선시대 서안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18. 주남철, 한구주택건축, 서울, 일지사, 1980.
19. 권병욱, 한국전통의장자료, 서울, 보진제, 1985.
20. 최복화, "현대생활에서 고가구의 용도분류와 고가구 관심도 조사연구—이조시대 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21. 최순우, "이조시대의 목공예 (1)—문방가구", 공간, 제 2권 1호, 2호,
22. Reynolds Edward, Man Sill Pai, KOREAN FURNITURE: Elegance and Tradition,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4.